

이통3사 영업재개...스마트폰 값 줄줄이 하락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출고가 낮춰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모두 받으면 '공짜폰'

SK텔레콤이 45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을 끝내고 영업재개 시점인 20일부터 스마트폰 6종의 출고가를 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자사 전용 단말기들인 삼성전자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와 LG전자 옵티머스TE3를 기존 가격에서 4만9500원씩 인하해 각각 26만9500원에 판매한다. 피쳐폰(일반 휴대전화)인 SHW-A301 S도 2만7500원 인하해 같은 가격에 판매한다.

이통사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모두 받으면 현장에서 '공짜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동통신 3사 공동 모델인 LG전자의 G2와 옵티머스G프로, 팬택의 베가 아이언도 가격을 내렸다.

G2는 기존 가격에서 25만5200원 내린 69만9600원, G프로는 22만3300원 내린 47만6300원으로 책정됐다. 베가 아이언의 출고가는 16만600원 인하한 38만9400원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제조사와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여 지속 협의해 왔다"며 "이외에도 갤럭시S4 액티브, 갤럭시S4 LTE-A(32GB), 갤럭시S4, 갤럭시, 갤럭시그랜드 등 제품의 출고가 인하여 삼성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U+)도 3사 공동 모델인 LG전자 G2와 옵티머스G프로, 팬택 베가 아이언의 출고가를 SK텔레콤과 동일하게 낮췄다.

KT는 앞서 단독영업 기간에 전용 단말기인 갤럭시S4미니와 옵티머스GK 등의 가격을 25만9600원으로 낮추고, 3세대(G) 스마트폰 L70도 같은 가격에 내놓은 바 있다.

LGU+는 단독영업 기간에 출고가를 인하여 옵티머스Gx의 출고가를 이번 영업재개에 맞춰 추가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당초 89만9800원으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63만8000원을 거쳐 이제 52만8000원이 됐다.

이번 휴대전화·스마트폰 가격 인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5와 팬택 베가 아이언2가 출시되고 LG전자 G3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등 최고급 신제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제품 출시와 기존 제품 출고가 인하 시기 사이에 다소 격차가 있는 것은 순차 영업정지 등 이례적인 시장 상황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브라질월드컵 '승리의 여름 프로젝트' 삼성전자가 2014 브라질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염원하며 TV와 에어컨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삼성전자 S 골드러시 승리의 여름 프로젝트'를 6월30일까지 펼친다. <삼성전자 제공>

금주의 추천 앱

'재난·위기'뎀 앱에 물어봐?

최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늘고 있다. 극장이나 공공시설 등 일상생활 속 안전수칙이나 대피요령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알아본다.

- 위기탈출 응급조치**
 - 제작 : 안전보건공단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비상상황이나 사고 시 대처방법, 응급상식, 질병 등을 소개하고 있는 앱이다. 심폐소생술·지혈법·환자 운반 방법 등 응급처치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이해하기 쉽게 소개되어 있다.
- 안전디딤돌**
 - 제작 : 소방방재청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폰 기능을 통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재난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기상정보·교통사고 상황·소방사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재난문자'발송 기능을 통해 앱을 사용하지 않는 중에도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
- 스마트안전귀가**
 - 제작 : 안전행정부
 - 사용기반 : 안드로이드, 아이폰

스마트안전귀가는 목적지를 지정해놓고 가는 길까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또한 긴급통화기능이 있고 아이폰·안드로이드 폰 모두를 지원해서 편리하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스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KT,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상용화 추진

4조5000억 투자...지능형 교통관제 등 미래 융합서비스 사업도

KT가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자해 지금보다 인터넷 속도가 3~10배 빠른 기가(Giga·1000Mb) 인터넷을 추진한다. 또 스마트 에너지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 5대 미래 융합서비스 사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사업 구상을 밝혔다.

KT는 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위해 우선 유선 인터넷 속도를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급으로 높인다.

무선 분야도 롱텀에볼루션(LTE)과 기가 와이파이(WiFi) 망을 함께 이용하는 이중망 융합기술인 '기가 패스'(GiGA Path) 등을 활용해 기존보다 3배 빠른 무선 인터넷 속도를 구현한다.

이처럼 기가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를 기반으로 인간과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가토피아'(Gi-GAtopia)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KT는 기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주력 사업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인터넷TV(IPTV) 업계 1위 역할을 결합, 초고화질(UHD) 기가 TV를 연내 상용화해 미디어산업을 선도할 방침이다

KT는 기가토피아가 실현되면 국가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영역에서

3만7000개의 일자리와 9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황 회장은 기가 인터넷과 함께 KT의 주력 산업인 통신과 융합해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5대 분야를 미래 융합 서비스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KT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5대 사업 분야는 ▲스마트 에너지 ▲통합 보안 ▲차세대 미디어 ▲헬스케어 ▲지능형 교통관제 등이다. 3년 내 시장 규모가 11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는 게 KT측 설명이다.

SK텔레콤, 신규 가입때 주방용품 제공

30일까지 기기변경 고객에도

지난 20일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이 오는 30일까지 신규 또는 기기변경을 통해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유명 주방용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사은품은 커피메이커와 믹서기, 토스트기, 스페셜머티워, 프라이팬2종 등이며 고객은 이 가운데 1개를 받게 된다. 또 21일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2주간 가입고객 가운데 매일 1000명을 추첨, SK

텔레콤의 전지현 광고모델이 착용하는 상품을 패키지로 만든 '스타 박스' 경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시행한다.

SK텔레콤은 전 직원이 광주 총장로 등 핵심상권에 직접 나가 영업재개를 알리는 한편, 신개념 요금할인 프로그램인 '착한 가족할인' 등 상품·서비스 현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임장준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장은 "더욱 가치 있는 서비스와 혜택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원천	371-9818
울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화남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6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순창군	063)653-0444
군산시	063)467-2500	고창군	070-8201-0370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원시	063)633-9911		
장성군	394-0400	담양군	383-8116
영광군	351-0055	곡성군	362-8111
함평군	324-8111	구례군	782-4696
무안군	452-8535	나주시	336-4759(군) 335-5501(시)
신안군	278-8111	화순군	374-4423
목포시	276-9200	순천시	746-8111
영암군	471-1717	광양시	792-8111
영암군	471-1717	보성군	852-9646(보성) 857-0686(별교)
장흥군	863-8822	여수시	692-0997
강진군	434-6830	고흥군	842-2121
해남군	537-6767		
진도군	543-0100	완도군	554-6677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2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_062 227-9600 | 신문구독 _062 220-0551 | 예향구독 _062 220-0550